

코라이자, 만성호흡기병, 살모넬라증 및 아플라톡신증의 중요성

●비위생적인 관리, 밀사,
온도 및 습도의 부적절 등
기본적인 관리소홀이
질병의 발병원인이 된다●

Dr. A. A. Qureshi
(사우디아라비아 카디농장 기술요원)

번역: 민 경 호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코라이자(Fowl coryza)의 만성호흡기병(CRD)은 중동지방과 열대지방에서 가장 일반적인 닭의 질병이다.

이들 질병의 발병원인은 비위생적관리, 과밀도, 온도 및 과습도 등 기본적인 관리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코라이자는 주로 과밀도한 사육과 불완전한환기 또는 낮은 기온에 의해 발병된다. 다시말하면 나쁜공기, 부족한영양 및 스트레스요소에 의해서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코라이자는 그 병변이 주로 기관지 상부에 한정되며 비강이 종창하고 콧물과 눈물을 흘린다. 이 질병은 일반적으로 유추에 감염율이 높으나 폐사율은 낮다. 성계에 있어서는 상기증상외에 산란율이 떨어지는 점이 있다. 이 질병이 계사안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원인

은 비강에서 배출된 균에 오염된 음수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이다. 코라이자는 설파체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사료에 비타민A를 보충해주면 즉 에너지 수준을 증가시키면 회복속도는 빨라진다. 대개의 경우 전염성코라이자가 발생하면 만성호흡기병이 유발되어 합병증을 나타내게 된다. 전염성코라이자는 여러가지 항생물질에 잘 듣는다.

만성호흡기병 또는 기낭병(Air Sac Disease)은 4~6주령의 병아리에 영향을 주며 폐사율이 높다. 이 병의 초기증상은 기침, 콧물, 호흡곤란이다. 이 병은 겨울에 많이 유행하며 유추에서는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폐사계를 부검하면 기낭이 혼탁, 종창하여 호흡장해를 일으킨 것을 알 수 있다. 이 병이 대장균과 복합감염됐

을때 심막염과 간주위염을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프소소는 이 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폐사율을 증가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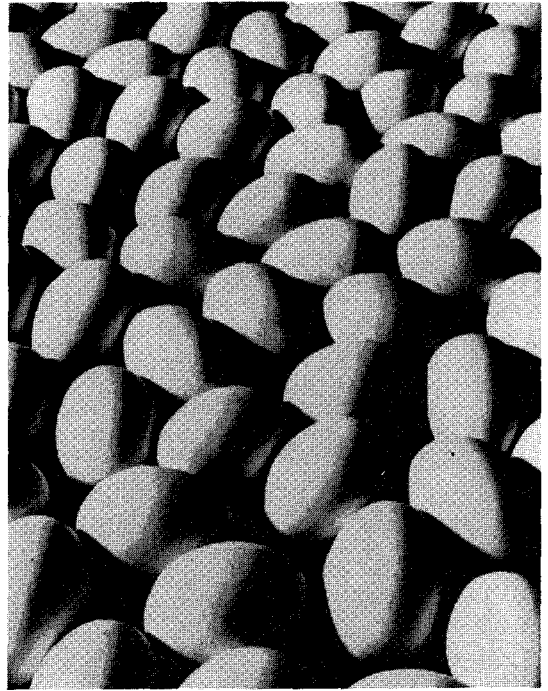
만성호흡기병은 난제대전염되므로 마이코프라즈마가 없는 모계로부터 얻은 병아리가 아니면 완전한 억제에 어렵다. 이 질병은 일정한 지역과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한 계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된다. 그러므로 이 병이 한번 발생하면 완전한 퇴치가 어렵다. 만성호흡기병은 여러가지 항생물질 즉 스트렙토마이신, 테라마이신, 오레오마이신, 타이로신, 에리스로마이신을 사용할때 효과적으로 억제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살모넬라증은 가금류에 있어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질병이며 주로 추백리, 티프스, 파라티프스 그리고 아리조나 파라코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대지방의 가금류에게 큰 손실을 주는 이 질병은 야생조류에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비둘기, 참새, 꿩, 그리고 칠면조 등에 의해서 이병이 옮겨진다. 살모넬라는 숙주의 장(腸) 안에서 증식하고 그곳에서 특이한 병원성을 나타낸다. 오염된 물고기나 고기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추백리와 티프스는 닭에 있어서 매우 일반적인 질병이며 난소에 전이된다. 이병은 파리, 진드기, 벼, 설치류 등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으며 오염된 환경이나 특별한 경우 파라티프스균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추백리는 대개 5일령 이하의 병아리에 발생되며 티프스는 3개월령 이상의 성계에 발병한다. 유추에서의 추백리는 패혈증 뿐만 아니라 간에 작은괴사 및 묽은설사 등의 병변을 나타낸다.

티프스는 성계에 있어서 그 전파 속도는 매우 늦다. 이 질병의 중요한 증상은 푸르스름한 설사를 하며 간이 청동색을 나타내게 되는것이다. 치료는 후라조리돈 또는 다른 항생물질을 사용하면 효과적이며 폐사율을 줄일 수 있다.

파라티프스 구룹의 질병은 특정한 혈청형에 의해서 일어나며 다른증상은 일어나지 않고 장(腸) 안에서만 발병한다. 이 질병의 증상은 순환계와



장내에 세균이 침입했을때 나타난다. 6일~10일령의 어린병아리에 발병하면 높은 폐사율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 후라조리돈, 네오마이신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이 혼합된 약은 파라티프스와 파라콜리균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스펙티노마이신과 겐타마이신은 살모넬라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마이코톡신증은 중독 뿐만 아니라 열대지방에 넓게 퍼져있으며 매우 일반적인 질병으로 최근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질병은 기후조건, 곡물의 위생적관리와 관리기술의 부족 그리고 곰팡이난 사료를 배합하여 공급하는 것에 기인된다. 마이코톡신은 진균에 의해서 산생되며 진균중의 아스파질루스 플라부스에 의하여 아플라톡신이 산생된다. 이들은 양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아플라톡신은 특히 사료를 오랫동안 축축하게 보관하는 동안 사료에 포함된 옥수수, 보리, 수수, 콩, 밀, 목화씨로 만든 사료 그리고 물고기에서 산생 증가된다. 닭이 계속해서 아플라톡신

을 먹을때 사료의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콕시듐과 살모넬라증 같은 여러가지 질병에 약해진다. 아플라톡신은 면역을 억제하고 면역의 생성을 방해하므로 전염성 질병의 발생이 증가된다.

아플라톡신증은 일반적으로 증상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육계에서는 성장율이 떨어지고 규격미달계가 많아진다. 산란계에서는 산란율이 감소하고 부화율도 떨어진다. 아플라톡신증의 병변은 안면의 창백, 쇠약간의 종대, 비장과 췌장의 종창 웨브리셔스냥의 퇴행 및 심낭의 담황색 액체의 축적 등이다. 그러나 독소량에 따라 병변이 강하게 또는 약하게 나타난다. 아플라톡신은 1.5ppm이 넘지 않을 때는 독성을 발산하지 않지만 5~10ppm이 넘

을 경우 유해한 독성을 나타낸다. 치료는 닭에게 아플라톡신이 있는 사료를 근절시키고 고량의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를 2주일간 투여하면 닭은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사료에 지방질을 높이고 아우로마이신을 첨가하여 먹이면 닭의 회복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질병의 억제수단은 오염된 곡식을 제거하는 것과 사료에 사용되는 곡식이 곰팡이나지않게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오염된 사료는 플로필렌글리콜, 나트륨, 칼슘, 프로피오네이트 등으로 처리하면 진균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

여러가지 질병의 진단법과 억제법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아직도 질병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관리에 있어서 오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철저한 진단으로 CRD없는 농장을!

모계의 마이코플라스마 감염 여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여 치료하면 마이코플라스마균이 실용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아 CRD없는 농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스마 보균계 진단용

MG 진단액

Mycoplasma gallisepticum antigen

MG진단액은 녹십자수의약품에서 개발 단독 생산합니다.

CRD 전문예방치료제

녹수 타이로신 - 50 수용산

원료공급원 : 미국 **ELANCO**

마이코플라스마균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동작구시당동 1031-29 ☎ 582-9181/5
 본사 · 공장 : 경기도용인군기흥면구갈리 227 ☎ 수원 ☎ 3423/4